

광주·전남 장애아동 “진학할 특수학교가 없다”

185명 기관 부족·부적응 등 이유 초등학교 못 가...방과 후 보육 등 환경 개선해야

광주와 전남지역 185명의 장애아동들이 특수교육기관 부족과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아동 취학유에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지났음에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전국에 1295명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 6세 어린이(초등 1학년)가 756명(전체의 58.4%)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학년 나이(만 12세)도 30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학교 대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정부가 국내 장애아동의 취학유에 실태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의 경우 89명(남 55명·여 34명)이 진학을 하지 못하고 어린이집과 가정에 머물고 있었다. 연령대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인 만 6세가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7세 18명, 만 8세 13명, 만 9세 10명, 만 10세 4명, 만 11세·12세 각 1명이다. 89명의 미취학 장애아동 중 56명은 거주지 인근에 특수교육기관이 없다는 이유였으며 치료나 수술 등을 위해 25명, 학교 적응이 어려워져서 8명이었다.

전남지역은 96명(남 54명·여 42명)의 장애아동이 취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만 6세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7세 23명, 만 8세 19명, 만 9세 4명, 만 10세 12명, 만 11세 3명, 만 12세 5명이다. 취학 유에 사유는 특수교육기관 없어서가 50명이며 28명은 ‘치료와 수술’,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 14명,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 1명, 기타 3명이다.

몸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아동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 부

담을 대부분 부모가 감당하는 실정이다.

장애아동이 학교에 입학할 경우, 방과후 생기는 보육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어 취학유에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교마다 규모와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인데 방과

후 돌봄 가능 인원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거나 교사 부족 등으로 종일반 돌봄이 불가능한 곳도 있다. 이런 경우 어린이집에 다닐 때보다 학교 시간이 빨라 맞벌이 부모는 돌봄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강선우 의원은 “몸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아동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비장애 아동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모든 부담을 대부분 부모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 후 돌봄 가능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교사 부족 등으로 종일반 돌봄이 불가능한 곳도 있다”며 “장애아동 보육을 위해서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조체계를 구축해 열악한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장애인 직업 박람회

20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 진로 직업 통합 박람회’에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체험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뻔뻔한 미쓰비시 자산매각 명령 불복 항고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92) 할머니가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인용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에게 즉시항고장을 냈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다.

우리나라 법원의 매각 명령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항고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이효선 부장판사)와 4부(김윤중 부장판사)에서 각각 맡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용찬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으로부터 압류한 5억여원 상당 채권(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하라고 주문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달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각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였다.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 채권)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 채권)이다.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상당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후배들이 힘내라”

전남대·총동창회·민주동우회 학내 대장 무료이용권 배부

전남대학교가 총동창회·민주동우회와 공동으로 ‘코로나 19’로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는 ‘후배들이 힘내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5000원 권 무료 이용권을 배부한다.

전남대, 총동창회, 민주동우회는 오는 25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전남대 용봉캠퍼스 정문과 후문, 공대쪽문, 예대 쪽문 등 모두 4곳에서 등교하는 대학(원)생들에게 5천 원 권 무료 이용권 2000매를 선착순 무료 배부하는 ‘후배들이 힘내라’ 행사를 가진다.

학생증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이용권은 생활협동조합 매장, 서점, 문구점, 매점, 식당, 카페 등 이용권에 명시된 대부분의 학내 매장에서 오는 29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무료이용권 배부에는 정성택 전남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들과 총동창회 조성희 회장, 민주동우회 이영승회장 등 단체 임원과 회원들이 참여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기 덜 쓰면 포인트 드려요 광주 서구 탄소포인트제 홍보

광주 서구가 가정 내 온실가스 감축 및 2045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학교,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탄소포인트인센티브는 가입 시점부터 과거 2년간의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이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연 2차례(6월, 12월), 연간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한다.

참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구청 기후환경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을 통해 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교육부,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조기 실시

여수 요트업체 현장실습 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고(故) 홍정운(18)군 사고(광주일보 10월 11일 6면)와 관련,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과 고용노동부 함께한 공동 조사단은 요트업체가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고, 학교도 현장실습 운영 지침(매뉴얼)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업체 측은 홍군이 법령상 잠수를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인데다가 실습 내용에도 없고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데도 잠수 작업을 시켰다. 또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실습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

학교는 현장실습 프로그램도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지만 학교에서 단독을 개발하고 업체와 공유하지 않은 점과 현장실습 계약 체결 표준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현장실습관리시스템’(hi-five·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용 포털)에 실습 기업을 등록하지 않고, 이에 따른 학생의 실습일지도 작성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부실 행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장 실습 전반에 걸쳐 학교·기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등 전수조사에 나선다. 11~12월에 걸쳐 진행되던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 시기를 이달 말로 앞당기고 그 범위를 시도교육청과 학교뿐 아니라 산업체까지 넓히기로 했다.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설치해 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산업체 대상으로는 현장실습생 실습과 관련된 안전·보건 조치 여부, 자격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확인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규정을 지켰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꾸리고 고용노동부와 현장실습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1~12월에는 전문가를 비롯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원단체,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 모임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폐지·직업계고 교육정향화 추진위원회’는 이날 여수를 찾아 홍군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